

‘모든 세계의 미래’에 ‘오늘’있다

이이남 작가의 베니스비엔날레 참관기

2015년 05월 15일(금) 00:00

가+ 가-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한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 축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난 9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막했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총감독을 맡았던 오쿠이 엔위저(51)가 이번엔 베니스에서 총감독을 맡아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라는 주제로 전시를 펼쳐 보였다. 전 세계인이 체감하는 급진적 사회변화, 고조되는 불확실성과 다양성, 세상을 둘러싼 여러 역학구조와 그 내재된 관계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술의 존재 이유로서의 역할을 느낄 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오쿠이 엔위저는 서사적인 구현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에 중심을 두고 전시를 만들어냈다. 미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언어가 아닌, ‘오늘’을 발언하는 살아있는 언어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유독 사회적 약자, 약소국의 슬픈 삶을 보여주는 작품과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여주려는 작품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지난 2007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접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Palazzo Mora와 Palazzo Bembo에서 열리는 ‘개인의 구조물(Personal Structures)’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작품설치와 전시 관람을 위해 3주가량 베니스에 머물며 이곳의 문화 향기를 누렸다. 본 전시 외에도 국가관, 병행전시, 기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술의 도시 베니스에 산재한 미술관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컬렉션과 전시가 이뤄지고 있어 도시 전체가 현대예술의 대향연의 장이 되고 있었다.

“2017년 가을” 기미제거를 위한 소중한 선택.
품위있는 그녀의 고정픽
클린업 품위미백
클린업 품위미백 “골라봐요, 깨끗해지는 거 원하지..”
기간 | 2017.09.01 ~ 10.31

수많은 전시공간과 작품, 그리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관객들 사이에서도 유독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다름 아닌 미디어아트 작품들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와 작품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작가로서 느끼는 자극과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겸손함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거대한, 화려한, 짜릿한, 답답한, 어두운, 밝은, 자극적인, 대범한, 섬세한, 신기한, 대단한 등등 모든 형용사가 다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시각적으로 신선함이 가득한 전시였다.

카스텔로 공원에 마지막으로 입성한 한국관엔 문경원, 전준호의 '비행술과 축지법'이 공간적 특성을 잘 살린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전시 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장소가 곡면의 LED를 사용하여 마치 전시장 자체를 하나의 오브제로 보이게 만든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비행술과 축지법은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서 보았던 'News from Nowhere'가 떠오르며 하나의 연결선상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서 유독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 있었다. 영국관의 사라 루카스는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진 전시관에 남성의 신체를 추상적으로 구현한 조각물로 시선을 끌었다. 시각적으로 뻔뻔스러우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방식이 그녀가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 상상하게 했다. 일상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여 성의 관념과 고정관념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파괴하는 그녀의 작품은 짜릿함을 넘어 통쾌함을 느끼게 했다.

또한, 프랑스관의 셸레스트 부르지에 무즈노는 '혁명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장 안과 밖에 나무라는 파격적인 작품을 보여 줬다. 5m에 이르는 뿌리와 흙이 통째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온 나무는 동력장치를 달아 정지된 상태가 아닌 움직이는 상태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는 제목처럼 움직임을 통해 혁명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자연을 향한 인위적 간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조각이라는 장르에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한국작가들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본전시를 비롯해 정상화, 이우환, 작고 작가인 김환기 등이 참여하는 한국의 단색화 전시, 김승민 큐레이터가 기획한 '베니스, 이상과 현실 사이(Sleepers in Venice)', 한국 이매리 작가가 참여하는 'Slip of the Tongue', 그리고 필자가 참여하는 'Personal Structures - Crossing borders'등이 비엔날레와 같은 기간 동안 도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작가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kwangju@kwangju.co.kr